**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 소프트웨어학과 3학년 재학중인 19학번 최동욱이라고 합니다. 타대학에 다니다가 중앙대에 22살에 2019년에 입학했고, 작년 1월 제대 후 복학해서 계속 재학중입니다.

올해 1월부터 AI대학 소속 조윤식 교수님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을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관심이 많아 교수님 연구실에서 동기들과 함께 딥러닝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항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고 생각해서, 중간에서 사람들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실합니다. 맡은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실하고 꾸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루지 않고 끝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신조는 "살아있자"입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식물처럼 숨만 쉬는 상태를 저는 "죽어있다"고 표현합니다. 군대를 다니면서, 업무와 스트레스로 죽어있었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대 후에는 최대한 이 시간을 잘 써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하루를 후회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살아있자"를 제 신조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원래 경제 쪽 애널리스트가 되는 것이 옛날부터 꿈이었어서, 고등학생 때부터, 통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과 쪽으로 진로를 바꾸면서 타 대학에 입학했는데, 타 대학에서 파이썬을 배우면서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생겨 중앙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이썬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파이썬의 가장 강력한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Pandas를 공부하면서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상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포탈 뉴스 알고리즘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상, 게시물을 적재적소에 추천해주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항상 지적되는 알고리즘의 문제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텍스트와 관련해서도 영어와 관련한 챗봇이나 자연어 처리 시스템은 굉장히 많고 정교하지만, 한국어 자연어 처리 시스템은 영어 만큼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크게 관련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글을 쓰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분석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관련 분야를 배우기 위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필수이기 때문에, 혼자 독학으로, 또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랑 깊지는 않지만 조금씩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지식을 배운 후에,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 관련 분야를 연구하시는 조윤식 교수님 연구실에 올해 1월부터 학부 연구생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교수님 밑에서 관련 분야에 대해 배우는 중입니다.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 분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은가요?**

위에서 얘기 했듯이, 자연어 처리와 추천 시스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 영어에 비해 한국어는 컴퓨터가 학습하기 어려워 영어에 비해서는 분야의 발달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 질의 응답 시스템 등을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 답답해 하고 불편해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서 AI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많아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연어처리에 대해 공부해서, 한국어로도 ChatGPT 그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컴퓨터와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이루고 싶습니다.

추천 시스템 분야에서는, 항상 지적되어 오는 알고리즘의 허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지를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딥러닝에 대해 혼자 또는 연구실 동료들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어떤 함수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처리를 어떻게 했더니 더 잘 되었다 등 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점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 초보 수준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들조차 명확히 설명이 어려운 기술을 일반인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리즘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발전해야 추천 시스템 분야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CUAI로 얻고 싶은 것을 마음껏 이야기 해주세요**

주변에 인공지능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이 쪽 진로를 택하려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주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 답답한 점도 많고, 이렇게 방대한 분야를 어떻게 공부할 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 수학, 통계 개념이 나와 막히게 되고, 관련 서적을 보면서 이론적인 부분은 납득이 가면서도, 프로그래밍 적으로는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모델을 설계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분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 분야를 공부한 분들, 같이 공부하는 분들을 만나 같이 얘기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더욱 열의를 갖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